

## 악담

엔키두는 지구에 낙오됐다. 탐사대의 일원으로 태양계를 돌다가 기계를 잘못 만져 혼자 어딘가로 떨어졌다. 떨어진 곳이 지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엔키두는 짧고 굵게 탄식을 내뿜었다.

엔키두는 지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지구는 멍청한 행성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능이 낮은 인간들이 난장판을 벌여놓은 행성이라고 들었다. 특이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구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엔키두 역시 지구에 별다른 관심은 없었지만 이렇게 온 김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지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얘기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엔키두는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돌아봤다. 인간은 대체로 불투명한 상징과 불완전한 물질을 쥐고 자신들의 손이 닿는 가장 높은 곳에 궁전을 짓고 있었다. 엔키두는 시공간을 뚫뚫 떠다니며 허우적대는 인간을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다.

엔키두는 어느날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의 해변가에 서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노인은 아주 느린 속도로 해변에 서 있던 엔키두에게 걸어왔다. 노인은 겹겹이 쌓인 주름을 사이로 눈을 부릅 뜨고 엔키두에게 말했다.

“나는 예언자요. 120년 평생을 예언자로 살아오면서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을 모두 내다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딱 한가지 내가 예언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죽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보이는데 내 죽음은 보이지 않소.”

엔키두는 노인을 뻔히 쳐다보았다.

“그것 참 고민이겠군. 죽음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소? 자, 여기 내 칼을 줄테니 이것으로 당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시오. 이 칼을 당신의 몸 어딘가에 꽂으면 당신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의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당신의 거울이 되어 죽음을 비춰주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드디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을테니.”

노인은 엔키두에게서 건네받은 칼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던졌다.

“내가 이 따위 방법을 몰랐겠소? 외관은 부서지고 흘러내리고 있지만 망할 장기들은 꾸역꾸역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내가,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매일 밤 약을 털어 놓아야 잠에 들 수 있는 내가 이 따위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소? 어찌면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칼을 놓고 고민했소. 기껏 내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싶다는 게 아니오. 나는 내 세상의 죽음을 보고 싶소.”

“내가 보기에 이미 이곳은 끝이나 다름없건만. 당신은 완전한 끝을 원한다는 말이오?”

“완전한 죽음, 나의 육신과 나의 세계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끝을 원한다오.”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소.”

엔키두는 노인에게 죽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친구요.”

“친구? 그러시든지. 이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노인은 엔키두를 집에 데려갔다. 노인의 집은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다홍색 벽돌로 지은 집은 단단해보였다. 노인은 엔키두에게 집안 곳곳을 보여줬다. 응접실에는 두 명쯤은 누워서 자도 충분할만큼 크고 넓은 가죽 소파가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누에고치를 절반 갈라놓은 것 같은, 머리와 온 몸을 감싸도록 디자인된 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서재에는 크고 작은 모니터 12대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노인은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키두가 머물게 될 방도 보여줬다. 사다리꼴 모양의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노인은 섬에서 가장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말했지만 엔키두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노인은 엔키두에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숙성된 위스키를 대접했다. 술에 취한 엔키두는 노인에게 자신이 본 지구가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노인은 자신이 이미 오래 전에 예언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엔키두와 노인은 자정이 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노인은 그날 밤 약을 먹지 않고 잠에 들었다. 엔키두는 노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즐거웠다. 낮에는 테라스에서 카드 게임을 했고, 해변가를 산책했다. 저녁이 되면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셨다. 노인의 요청 따위는 점점 잊혀졌다. 노인도 엔키두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그 날 저녁에도 엔키두와 노인은 해가 지기도 전에 술에 취해 있었다. 노인은 엔키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친구,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요즘 같이 즐거웠던 때가 없었네.”

“다행일세. 나 역시 예상 밖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네는 자네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지금 당장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면 그만이지.”

“자네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보았네.”

“뭘 보았던 말인가?”

“자네의 운명을 보았지. 나는 예언자라네.”

“나의 운명을 보았다고?”

엔키두는 말 없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한 손으로 노인의 멱살을 잡고 노인을 높이 들었다가 바닥으로 던졌다. 엔키두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재킷 깃을 잡고 노인을 서재로 끌고 갔다. 노인은 간신히 눈만 뜬 채 엔키두에게 끌려갔다. 엔키두가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모니터를 비롯한 모든 기기와 가구가 가루처럼 부서졌다. 방을 통째로 믹서에 넣고 갈아버린 것처럼 모든 것은 가루가 됐다. 뽀얀 먼지가 방안에 가득찼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루가 자신의 코와 입을 거쳐 폐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싫지 않았다. 노인은 어떻게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가려고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엔키두의 두꺼운 손이 자신의 뇌와 심장을 세계 옮겨주고 있었다.

“자네의 세계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지. 자네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부순 건 모니터 몇 대일 뿐이라고, 자네의 세계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말이지. 이게 전부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이 작은 방이 전부라고. 가루가 된 모니터 몇 대는 싸구려 만화경 같은 거야. 자네는 그저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너머를 훑쳐보고 제멋대로 상상하며 자네의 세계라는 게 그곳에 있다고 믿었던 것뿐이야. 자네의 세계가 사라진 이 광경을 보고 있나? 언제? 내가 이뤄준 자네의 소원? 마음에 드나?”

노인은 눈을 뜬 채로 눈을 감았고, 엔키두는 술이 깨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